아시아 공동체라는 의미에 대하여

불어불문학과 201421650 황가영

처음에 국제통상을 전공하기로 한 이유는 진로를 무역분야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통상학부에서 개설한 강의를 듣다 보지 단순히 무역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많을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역관련 지식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관계들과 경제상황, 최근의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라는 대륙의 국가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속에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마침 저번학기에 국제학부에서 열린 과목 중 아시아공동체론 이라는 과목을 알게 되었고, 이미 이 과목을 수강했던 친구가 저명한 교수님과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서 유익한 수업이라는 말을 듣고 고민 없이 아시아공동체론 이라는 수업을 선택했다.

아시아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 과목을 통해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되게 생소했었다. 그러나 박성빈 교수님의 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되었고 공동체를 성립하는 데에는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인적교류가 가장 인상깊었는데 각 국가들은 협력을 통하여 엘리트간 교류, 시민사회 교류, 학술교류, 청소년 교류 등을 한다고 하였다. 양국의 대학생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교환학생도 인적교류의 한 예가 아닐까 싶다. 또한 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 하에 각국가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외전략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모든 강의들 중에 나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시아공동체라는 강의주제로 강의하신 김용기 교수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끔 국제통상과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면 항상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기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었다. 그런데 김용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나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투자대상으로 2번째로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의 이점들 덕분에 중국과 미국 두 열강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지역이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로서 이미 중국을 추월하고 있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도 china+1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증가하는 중산층의 인구로 인해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대하여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중일관계에 관한 학술대회도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직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중일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현재의 중일관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맺은 우호적인 관계로 한시적일 것이라는 에측을 들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교수님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무역전쟁에 계기와 과정 그리고 결말예측까지 들을 수 있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역전쟁을 중국이 버티지 못해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듣고 한결 우려했던 감정이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두 개의 세션에 참가하면서 들은 교수님들의 발표가 내가 한중일의 관계의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아시아공동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윤강의 형식의 강의를 들었는데 듣기 전에는 윤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여러 교수님들의 이제껏 연구해온 내용을 다양하게 듣고 그분들의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에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수업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한다.